

‘지역 특혜 프레임?’ 한전공대 특별법...국회서 ‘또 패싱’

의안 발의 후 22일 만에 통과된 ‘울산과기대 특별법’과 대조
3개월 내 특별법 제정·시행령 공포·특수법인 전환 마쳐야
5월 입학전형 발표 못하면 내년 3월 학생 없이 반쪽 개교

2월 임시 국회가 개원해 처음으로 법안 안건심의를 열리지만 이번에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는 2월내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22년 3월 정상 개교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것은 학교법인 한전공대가 특수법인 전환을 거쳐 늦어도 오는 5월 초에는 입학전형 발표와 함께 수시모집을 진행해야 내년 3월 정상개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법시도민지원위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법안 안건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전공대 특별법을 다룰 ‘산업통상

자원특허 소위원회’는 이날 한전공대 특별법을 제외한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과 ‘포항 지진 특별법 개정안’ 만 심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월 임시국회 법안 안건심회는 오는 18, 25일 두 차례 더 남아 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법안심사 소위 심의를 통과해 해당 상임위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안 상정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위원회는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당시 같은 당 의원 18명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전국 권역별로 에너지 관련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 대학이 있다”며 “그런데도 새로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세우겠다는 것은 전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을 쥐어짜서라도 대통령 공약 이행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야권 일각에서는 광주·전남에 울산

과기원, 포항공대와 견줄만한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것 자체를 ‘지역 특혜사업’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전남법시도민지원위는 ‘야당이 지역 특혜 프레임을 씌워 한전공대 설립 취지를 오토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원위는 한전공대와 비교 대상이 되는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울산지역 유일의 여당 의원이었던 열린우리당 강길부(울주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발의 후 22일 만에 신속하게 통과된 사례를 들며 야당이 ‘호남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법시도민지원위는 오늘(4일) 오후 2시 국회 앞 분수대 광장에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자연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법안 설립이 불투명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한전공대는 한전 본사가 소재한 나주혁신도시 내에 설립된다. 6개 에너지 전공 별로 100명씩 계획된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조감도. 한전공대는 나주혁신도시 부영CC 인근에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미지=나주시 제공)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 등이다.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은 국내 대학 중 가장 공격적인 ‘학생 10명당 1명’을 기본으로 전체 교수 수를 100명 +α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법시도민지원위 관계자는 “한전공대가 광주·전남 지역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뿌리 깊은 호남차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은 호남동행에 외쳐온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살펴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영광에 국제규격 갖춘 ‘전천후 실내승마장’ 들어선다

영광군, 휴양·체험·관광자원과 연계 운영...다음달 착공

영광군이 지역의 휴양·체험·관광자원과 연계할 국제규격을 갖춘 실내승마장을 건립한다.

영광군은 군민 모두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광 실내승마장’을 오는 3월 중으로 신축한다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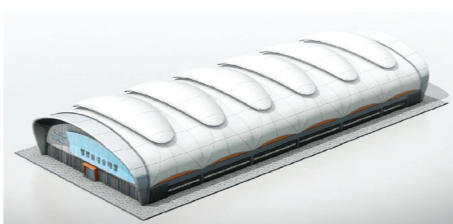
실내승마장은 지난 2014년 흥농읍에 개장해 운영 중인 실외승마장 자리에 들어선다. 기존 실외승마장은 신축 실내승마장 인근 아래쪽 부지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는 실내승마장은 국제규격에 맞춰 신축한다.

부지 2만4000㎡, 연면적 2824㎡(70×30m) 규모로, 지붕을 막구조물로 씌우고 실내 바닥은 특수섬유가 포함된 혼합규사로 마감한다.

바닥 마감재는 사계절 최적의 수분을 유지함으로써 충격완화 효과가 뛰어나 말과 기수의 안전에 큰 도움을 주는 소재로 알려졌다.

영광군은 실내승마장이 준공되면 힐링공간으로 군민들에게 개방하고, 전국단위의



오는 3월 착공 예정인 ‘영광 실내승마장 조감도’. (이미지=영광군 제공)

각종 승마대회를 연중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인근에 들어선 ‘영광테마박물관’이 유원지로 전환됨에 따라 승마장과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관광명소로 가꿀 예정이다. 영광=서희권기자

광주 TCS·안디옥 연결고리 찾았다...“서울서 유입”

서울 확진자들, 1월 중·하순 TCS 광주캠프 참여
광주TCS→에이스TCS→안디옥→n차 전파 추정

광주지역에서 최근 잇따라 터진 종교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은 미인가 국제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인과 접촉 뒤 집단생활을 하면서 무더기 확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광주 TCS국제학교와 안디옥교회, 북구 에이스 TCS국제학교 집단 감염은 정밀 역학조사 결과 서울지역의 한 확진자가 자녀 3명과 함께 광주를 방문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확진자는 지난달 13일 자녀 3명과 함께 광산구 광주 TCS국제학교를 방문, 관계자 등과 함께 18일부터 시작된 ‘2021 겨울 광

주 예수복제소 캠프와 성경캠프 등을 준비했다.

당시 이 국제학교 캠프에는 안디옥교회 교인 3명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안디옥교회 내부로 2차 전파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안디옥교회에서는 캠프 참여 일부 교인을 통해 교회 사무실 직원과 교회 안팎의 단체활동을 통해 또 다른 교인들에게 n차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 광주 TCS국제학교의 또 다른 교인은 북구에서 열린 에이스TCS국제학교 캠프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정기자

토요일은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